

숙명여대, 바이오·화장품 등 헬스케어 분야 특성화

기사입력 2017-09-14 14:00:00

◆ 한국형MBA ◆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은 '헬스케어 경영 전문가' 육성에 특성화된 학교다. 숙대는 국내 최초로 2016년도부터 헬스케어 MBA 과정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화장품' '제약'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고급화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헬스케어산업은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약품과 메디컬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모태가 되는 바이오산업의 중요도는 최근 매우 커지고 있다.



박내회 원장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숙대 MBA는 국내 헬스케어산업에서 경영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학교는 국내 헬스케어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다.

숙대 MBA는 소수정예 체제로 알려져 있다. 주간과 야간 입학 정원이 각각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밀도 높은 강의가 가능하며 교수와 학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워크숍과 실습은 숙대 MBA만이 가진 특화된 수업이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숙대 헬스케어 MBA 과정의 주요 강의는 기술 경영 인력 양성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전법' '특허법' '협상론'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략' 등이다. 학생들은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경영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해외 글로벌 기업에 방문해 생생한 현장에서 실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숙대 MBA 주간 과정은 50%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야간은 30%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본인의 영어·수학 능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